2021. 5. 4. (화) 언론보도

경기일보

2021년 05월 04일 (화)
02면 종합

道 통일·안보·외교 싱크탱크 '국제평화교류委' 공식 출범

분야별 전문가에 위촉장 수여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등 자문
李 지사 "남북 화해의 봄 올 것"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제평화교류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를 열고 통일·안보, 국제정치, 공공외교 등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민선 7기에서 최초 구성된 자문기구다. 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국제평화교류 정책을 자문하게 된다.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으로는 염종현·정희시 경기도의원, 강호제 베를린자유대 교수,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애경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조영미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한미미 YWCA 부회장, 신준영 평화협력국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5월부터 오는 2023년 5월까지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번씩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고려해 필요 시 임시회를 열어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의 국제평화교류 추진방향과 지원계획 수립, 국제평화교류 사업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라며 "비록 지금은 꽃샘추위에 있지만, 대결과 갈등을 넘어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남북 당국의 노력과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봄은 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활용 가능한 법령을 동원해 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 추진으로 남북 관계 악화를 막았던 사례를 언급, "평화교류가 국제적으로 매우 정치적인 영역인 만큼 정부와 민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차원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